명덕누리

Myung Duk Nuri

제5호

http://mdfh.or.kr/ 서울시 강서구 강서로 47길 34-10 Tel. 02-2665-8818, 8823 **발행인** 윤형탁 **발행처** 명덕외국어고등학교 **편집인** 동아리 COMP, 박예정(지도교사) **발행일** 10월 15일

교장 선생님 인사말

명덕외국어고등학교에 관심을 가지고 지원하고자 하는 학생, 학부형님들을 지면으로라도 만나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명덕외국어고등학교는 특수목적고등학교입니다. 1974년 시행된 고교평준화 정책은 많은 장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각 분야의 뛰어난 인재를 대상으로 특별한 교육을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한 점을 보완하기 위해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자연계의 과학고등학교, 인문계의 외국어고등학교, 예·체능계의 예술고등학교, 체육고등학교 등 전문교육을 위한 특수목적고등학교를 두어 수월성 교육을 하게 됩니다.

지금은 교통과 통신의 발달로 세계는 놀라운 속도로 가까워지고 지구촌이라는 말이 피부로 느껴집니다. 세계가 하나로 연결되는 시대에 외국어는 거의 모든 분야에서 필수적인 자질입니다. 우리 학교는 이러한 흐름에 발맞춰 정치, 경제, 역사, 지리, 과학, 문학, 예술, 등 모든 분야에서 깊이 있는 독서와 사유를 통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과 글로 표현하고 다른 사람들과 생각을 나눌 수 있는 교양인, 모국어처럼 사용할 수 있도록 외국어를 익혀 세계의 인재들과 교류하며 그들과 함께 인류의 미래를 논의 하고 바른 방향을 모색해 가는 세계인,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다른 사람들과 소통하고 배려하며 공동체를 위해 기꺼이 손해를 감수하고 봉사할 수 있는 봉사인을 목표로 세계적 인재로 학생들을 키우고자 합니다.

명덕외국어고등학교에는 열정이 넘치는 선생님들과 바르고 성실한 학생, 그리고 국내·외 사회 각계 각층에서 빼어나게 활동하고 있는 선배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인적 네트워크는 여러분들이 세계적 인재로 커가는 데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 줄 것입니다. 명덕외국어고등학교에서 세계를 향한 큰 꿈을 펼쳐보기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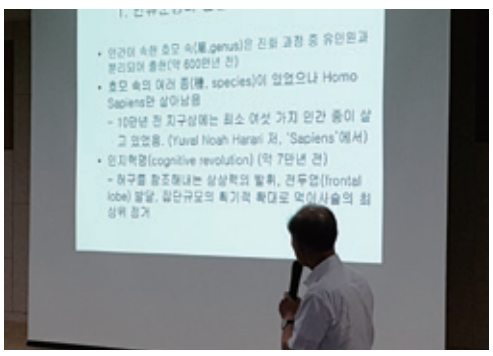
명덕의 얼굴, 홍보 동아리 COMP

명덕외국어고등학교의 입학설명회가 열릴 때마다 학교에 대해 발표하고 웃는 얼굴로 학부모님들과 중학생들의 질문에 답한 학생들이 누구일까? 바로 명덕외국어고등학교 유일의 홍보동아리 '꼼프'의 학생들이다. '꼼프'는 매년 중학생들을 위한 설명회에서 학생들의 궁금한 점을 해결해주며 학교를 홍보하고 발표를 진행하는 역할을 한다. 또한, 2학기에는 홍보 신문 명덕누리를 발행하여 학교의 소식을 전하기도 한다. 꼼프 많이 응원해주세요♥

COMP SINCE 2012

기자_문시현, 임지영

명덕외고생들만을 위한 명품강의



올해 명덕외고 에서는 1, 2, 3 학년을 대상으로 2017 MDSEP (명덕자기역량강화프로그램) "명품강의" 프로그램을 실시했다. 이 프로그램은 서울대 명예교수협의회 소속 교수님들이 오셔서 구성한 강좌를 학생들이 직접 선택하여 자유롭게 수강할 수 있도록 한 것이 특징이다.

"명품강의" 프로그램은 그동안 기획된 다른 여러 가지 강의보다 학생들의 참여도와 집중도가 높았고, 서울대 명예교수님들께서는 명덕외고 학생들을 위해 알찬 강의를 준비해주셨다. 교수님의 강의에 관련한 질문이나 평소 해당 학문의 궁금한 점을 자유롭게 질문할 수 있는 기회도 있었다. 특히 한 분야에만 국한되지 않고 자연대 통계학과, 인문대 국어국문학, 사범대 교육학과, 인문대 언어학과, 사범대 영어교육과, 자연대 물리천문학과, 의대 의학과 등 다양한 분야의 학과 교수님들의 강의를 들을 수 있어서 학생들의 만족도 또한 높았다.

올 여름 '동문초청 명덕포럼'과 함께 기획된 이 행사는 학생들에게 효과적이고 심화된 진로탐색을 할 수 있는 흔치 않은 기회로써, 학생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두드러진 프로그램이었다.

기자_송서연

2017 MDSEP 명품강의

7월10일(월)		7월11일(화)	7월12일(수)
박성현 교수	최명옥 교수	박성익 교수	이현복 교수
빅데이터	논리적인 글쓰기	성공적인 학습 전략	한국어와 영어의 발음

7월12일(수)	7월13일(목)	7월13일(목)	7월17일(월)
권오량 교수	김정구 교수	강위생 교수	안삼환 교수
영어학습법	상대성 이론이란	진로선택의 방법	토마스만과 이청준

7월18일(화)	7월19일(수)		
최종고 교수	이정민 교수	허승일 교수	김병동 교수
미술로 본 법과 정의	언어학과 인지과학	인문학의 밝은 미래	종자과학과 식량

학생 진로 특별 초대석 동문초청 명덕 100℃

동문초청 명덕포럼

1차 5/17(수) 19:00~21:00	2차 5/24(수) 19:00~21:00	3차 5/31(수) 19:00~21:00	4차 7/12(수) 19:00~21:00
안재철(7회) (SBS PD) "당신의 인생을 디렉팅하라"	이현재(6회) (영화전공 교수) "좋은 영화를 만들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가. 영화인이 되려면…"	임상준(1회) (사업, 동문회장) "진로와 직업의 선택에 대하여"	정재훈(2회) (매킨지 컨설팅) "경영 컨설턴트란 무엇인가와 진로 탐색"
조항리(13회) (KBS 아나운서) "아나운서, 언론인 그리고 진로와 직업"	성훈식(10회) (커피유통사 대표) "건전하게 경쟁하기. 창업 커리어 트랙-적합도 알아보기"	조상준(6회) (문화체육관광부) "공무원 직업 소개"	인순민(4회) (국세청) "후회없는 선택"
	임재원(10회) (GOPIZZA 대표) "어떤 창업을 하느냐 보다 어떻게 해야 창업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느냐"	김정기(8회) (인천지법 판사) "30대 법조인으로 사는 모습"	최민영(7회) (국방부) "행정고시 준비에 대하여"

요즘 화두인 예능 '하트 시그널'에 출연 중인 장천 변호사, TV 프로그램 곳곳에서 활약하며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전현무 아나운서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약하고 있는 명덕인들. 이렇게 각 분야에서 성공적으로 자신의 삶을 꾸려나가는 선배들을 보며 각자만의 꿈을 일구는 명덕외고 학생들을 위해 선배들이 직접 나섰다! 명덕 100℃는 경영, 방송, 영화, 법, 컨설팅을 비롯하여 여러 분야에서 활약하고 있는 명덕 선배들이 학교에 직접 방문하여 강연 형식으로 자신이 하는 일을 소개하고, 직업에 관한 갖가지 에피소드를 전해주는 뜻깊은 시간이다.

강연에서 선배들은 명덕외고 재학시절 이야기, 담당 분야에 관한 기본적인 소개, 그리고 그 분야로 나아가기 위한 자신만의 '꿀팁'을 전수한다. 예를 들어, 경영분야의 강연에서는 맥킨지 컨설팅 회사를 중심으로 경영전략 컨설팅에 대해 다루었고, 행정 분야에서는 공무원을 위한 행정고시 준비방법과 더불어 과 선택이나 진로방향에 대한 조언도 들을 수 있었다. 방송 분야에서는 KBS 소속 조항리 아나운서가 방문하여 아나운서로서의 생활과 직업의식 그리고 진로를 찾고 이루어내는 과정 속에서 가져야 할 마음가짐에 대해 학생들에게 진심어린 조언을 남겼다.

명덕 100℃는 실제로 학생들에게 많은 영향을 주었다. 경영 파트를 들었던 1학년 영어과 정지우 학생은 '앞으로 내 진로에 대해서 얼마나 알아가야 하고 뭘 준비해야 할지 고민해보는 계기가 됐으며 미래를 위해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고 공부해야 할지에 관해서 알게 됐다.' 라고 말했다. 1학년 독일어과 김나영 학생은 여러 분야 중 가장 인상적이었던 강연을 묻자 '창업 분야가 가장 좋았다'며 '관심 있거나 진로로 생각했던 분야가 아니었으나 창업을 하신 분들이 사소한 아이디어로 시작해 큰 성공을 이루어 냈다는 것이 대단하게 느껴졌다.'고 전했다.

이처럼 동문초청 명덕 100℃는 명덕외고 학생들에게 자신의 진로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해보고 새로운 분야에 대해 알아갈 수 있게 해준 행사였다. 세계로 뻗어나갈 명덕인들을 위한 발판이 됐을 명덕 100℃, 선배들에게는 후배와의 즐거운 추억이 되고 학생들에게는 새로운 동기부여이자 든든한 선배를 만날 수 있는 모두에게나 의미 있는 시간이었음이 틀림없다.

기자_김혜민, 임은지

일급 비밀 선배의 꿀팁

명덕외고에는 명덕외고만의 이색적인 멘토링 프로그램이 있다. 바로 '선배의 꿀팁'! 선배의 꿀팁은 공부 방향을 잡지 못한 학생들, 학교생활에 적응하지 못한 학생들, 내신에 대해 아는 정보가 없는 1학년 학생들을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이다. 5월 초와 7월 중순 2번에 걸쳐 진행되는데, 1학년 각 반 별로 2학년 선배 1명 또는 2명이 들어가서 자신만의 노하우를 전수한다. 멘토링의 내용은 굉장히 구체적인데, 주로 자신만의 마인드컨트롤 방법, 내신 공부법, 기숙사 적응 방법 등을 다룬다. 특히 내신 공부법 같은 경우에는 선배들이 과목별 공부 방식에 대해 자세하게 알려주기 때문에 굉장히 유익하다는 반응이다. 비법 전수뿐만 아니라 선배들이 후배의 고민을 상담해주는 애틋한 시간도 있다.

기자_박건영, 이소정

가장 효과적인 선생님, 나의 친구 또래 멘토링

명덕인들은 학교 생활을 하면서 다양한 문제를 겪게 되고 많은 고민을 하게 된다. 이때 가장 큰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일까? 바로 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 또래 명덕인들이다. 또래 멘토링은 2학년 재학생들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프로그램이다. 우선 2학년 전교생에게 어떤 친구에게 어떤 내용의 멘토링을 받고 싶은지 설문을 하여 친구들의 추천을 통해 멘토들이 선정된다. 선정된 멘토들은 그 영역에 대해 어려움을 겪으면서 생긴 자신만의 노하우나 문제 해결 방법 등을 신청한 친구들 앞에서 발표하게 된다. 그 설명을 듣고 멘토 친구를 지속적으로 만나면서 고민을 해결하고 싶은 학생들은 멘티 신청을 하게 되고, 이렇게 멘토-멘티 관계가 성립된다. 이 이후부터는 자율적으로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이러한 또래멘토링은 멘토와 멘티 모두에게 가치 있고 소중한 경험이 될 것이다.

기자_임지영

3학년만의 프로그램 졸업생 멘토링

명덕외고에는 학년 별로 특화된 자율활동이 존재한다. 1학년의 경우 논리력과 비판적 사고를 기를 수 있는 토론 수업에 참여하고, 2학년들은 각자 소논문을 한 편씩 쓴다. 대학 입시를 목전에 두고 있는 3학년 학생들은 '졸업생 멘토링' 이라는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 학생들은 관심사가 맞는 친구들을 찾아 자율적으로 조를 편성하고, 탐구 주제를 정해 계획을 담은 1차 보고서를 담당 선생님께 제출한다. 그 후 담당 선생님께서 해당 분야의 전공을 가진 선배를 이어주시면, 멘토와 멘티는 각자 스케줄에 맞게 정기적인 만남을 갖는다. 멘티들의 연구 과정을 멘토가 지도해주고, 피드백을 받는 과정을 여러 번 거치며 최종 보고서를 작성한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니다. 명문대에 재학중인 선배들의 자소서나 면접 꿀팁 등 입시 경험 이야기, 대학 생활 이야기, 대학 탐방 등 궁금한 것 모두 선배에게 조언을 받으며 흔들리기 쉬운 고3 생활에 많은 도움을 받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다. 대입을 앞둔 3학년 학생들에게 최적화된 졸업생 멘토링 프로그램은 학생들의 멋진 열정과 졸업생 선배들의 경험이 만나 입시와 진로 탐색 모두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

기자_신윤지

명덕을 빛낸 선배님들

박현진 23기 영어과 선배님(서울대 자유전공학부)

Q 선배님이 생각하는 명덕외고의 장점은?

A 무엇보다도 기숙사가 정말 큰 장점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친구들끼리 맞대면서 살다보니까 행복한 추억도 많이 쌓이고 우정도 깊어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학교에서 마음만 먹으면 이런저런 활동을 적극적으로 할 수 있다는 게 정말 좋았어요. 경제 동아리 부원들끼리 모여서 교내 모의무역대회 행사를 개최하기도 하고, 면접 스터디는 물론 연구동아리까지 쉽게 만들 수 있어서 입시에 도움이 많이 되었습니다.

Q 명덕외고의 어떤 점들이 공부하는 데에 있어서 도움이 되었나요?

A 앞서 말했지만, 분위기가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너도나도 공부하는 분위기가 형성되어 있어서 자극을 정말 많이 받은 것 같아요. 혼자서 공부하면 힘이 쭉 빠지곤 하는데 면학실에서 공부하면 다들 공부하는 모습에 탄력도 받고, 쉬는 시간마다 재충전을 하는 느낌이었습니다.

Q 명덕외고에서 했던 것들이 대학교 활동에 도움을 준다면 어떤 것들이 있죠?

A 우선 외국어를 3년간 공부했던 게 큰 도움이 된 것 같아요. 대학교에 가면 대부분은 졸업요건으로 외국어 과목을 2~3개 이상은 청강해야 하거든요. 영어하고 프랑스어를 깊이 배우고 가니 훨씬 편했어요.

이유민 23기 중국어과 선배님(연세대 중어중문학과)

Q 선배님이 생각하는 명덕외고의 장점은?

A 제가 생각하는 최대 장점은 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많다는 거에요. 저는 제가 평소 하고 싶었던 활동들을 자율동아리를 통해 부원들을 모집해서 같이 활동을 하곤 했었거든요. 어떤 분야든 국한하지 않고 하고 싶은 연구를 할 수 있다는 것이 최대 장점인 것 같아요. 그리고 2학년 때는 진로시간에 논문을 쓰는데 그 당시에는 '고등학생이 무슨 논문을 쓸 수 있겠어' 라는 생각을 가졌었는데 지금 대학생활을 하면서 그 때 썼던 경험이 정말 큰 도움이 되고 있어요. 자료 찾는 것부터 시작해서 논문 형식에 맞춰 글을 작성하는 것 까지 명덕외고에서 한 활동 덕분에 저는 다른 친구들에 비해 잘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Q 어떤 활동들이 대학교 진학에 도움이 되었나요?

A 저희 학교가 세미나를 되게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세미나들을 많이 참가했었던 기억이 나는데 그런 활동들도 제가 어떤 학과를 쓰고 싶은지, 그리고 그 학교의 어떤 학과에 진학하려면 어느 정도 스펙이 필요한지 돌아보고 공부하게 한 동기가 되었던 것 같아요.

Q 명덕외고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활동은?

A 해외문화탐방이 가장 기억에 남아요. 저희는 1학년 때 세월호 침몰이라는 아주 안타까운 일이 발생해서 해외문화탐방을 12월에 가게 되었어요. 기말고사 끝나고 말이에요. 1학년의 모든 일정 중 해문탐만 남게 된 상황이라 마음의 모든 짐을 내려두고 홀가분한 마음으로 다녀올 수 있었어요. 홍콩을 갔었는데, 저는 이미 한 번 갔던 곳이라 기대를 안하고 갔는데도 친구들과 가니 느낌이 색다르더라고요. 밤에는 친구 방에 가서 밤새 얘기도 나누고 정말 재밌었어요. 재밌었던 기억밖에 없는 것 같네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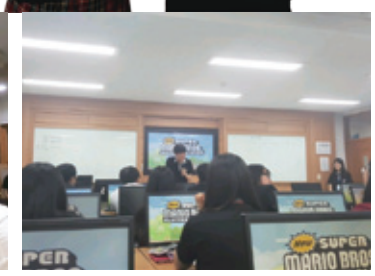
기자_황은지

동아리들의 지식을 뽐내는 시간, 학술제, 포럼

1학기 기말고사가 끝난 후 여름방학을 맞이하기 전 학술 동아리들이 한 학기 동안 연구해온 논문과 보고서를 발표하는 학술제가 열린다. 학술제는 논문 발표와 포럼 두 가지 형식으로 진행되는데 각 동아리에서 지원하고 싶은 분야에 논문이나 계획서를 제출하면 선생님들의 심사를 거친 후 선발된 동아리들이 발표를 할 자격을 얻게 된다.

학술제 발표의 주제로는 '한국의 사회 불평등 문제' 등 분야별로 각 동아리들이 자신들의 전공에 대해 심화 탐구한 내용과 '중고서점 책 판매' 등 학교에서 찾아볼 수 있는 상황을 바탕으로 가설을 세운 후 탐구한 내용이 주를 이루었다. 특히 올해 학술제에서는 '뚜찌빠찌뽀찌 언어로 대화하기(MIIT)' 와 '문학과 사회의 관계(인간극장)' 등 학생들의 흥미를 불러일으킬 수 있을 만한 주제도 있었다. 동아리 '인간극장'에서는 소설 '감정교육'을 바탕으로 르네상스 시기의 프랑스 귀족 문화와 시대상 등을 분석했는데, 책 속에 나온 장면들을 직접 대본으로 각색해 연극 형식으로 진행했다. 특히 연극 도중 발표를 경청하고 있는 관객의 참여를 유도하여 함께 연극을 진행하는 청중 참여형 포럼 방식을 진행하여 학생들의 호응을 얻었다.

이처럼 명덕외고의 학술제는 학생들이 자신이 전공하고 싶은 분야를 심화 탐구하거나 관심이 있는 주제를 접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주어 발표를 하는 학생들의 입장에서도, 경청하는 학생들의 입장에서도 많은 도움이 되는 행사이다. 학술제에 처음 참여한 1학년들은 학교의 특색 있는 행사에 참여해 감회가 새롭고 도움이 많이 되었다는 의견이 많았다. 여름방학을 시작하기 전 학생들의 많은 관심으로 학술제의 열기가 뜨거웠던 올해 여름이었다.



기자_문시현

명덕외고 공연동아리들의 꽃! 동아리 발표회

매년 8월에 개최되는 동아리 발표회는 명덕외고의 공연 동아리들이 오랫동안 갈고닦은 실력을 마음껏 뽐낼 수 있는 특별한 행사이다. 사물놀이 동아리 '패'의 신나는 공연으로 시작하여, 춤 동아리 'DOHC', 영어 연극 동아리 '잉글잉글', 연극 동아리 '막', 세미클래식 동아리 '우리', 영화 제작 동아리 '씨네필', 영상 제작 동아리 '에드히어', 힙합 동아리 'TS2', 밴드부 'M.People'과 '게로이' 등 총 11개의 공연 동아리들이 참여한다. 이 외에도 선생님들만으로 이루어진 '허즈밴드'의 공연과 쉬는 시간 틈틈이 진행되는 사회자들의 재치 있는 진행 또한 행사를 다채롭게 꾸며주는 요소 중 하나이다. 동아리 발표회를 위해 모든 공연 동아리 부원들은 열심히 연습을 하는데, 여름방학 중에도 개학 이후 학교 일과 중에도 틈틈이 연습에 매진한다. 이러한 노력은 동아리 발표회에서 빛을 발한다. 공연을 관람하는 학생들은 친구들의 놀라운 실력에 감탄하고 적극적인 호응을 보낸다. 공연을 준비한 동아리 부원들은 무대에 섰을 때의 짜릿함, 관람 학생들의 뜨거운 환호 등으로 동아리 발표회는 잊지 못할 기억으로 남는다.

기자_장현민, 김율아

글로벌 독서경시대회

글로벌한 명덕외고 학생들을 위한 발판!

명덕외고에는 명덕외고만의 아주 특별한 행사가 있다. 바로 글로벌 시대에 발맞추어 전공어권 문화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전공어에 대한 학습 의욕을 고취시키고, 세계 시민으로서의 자질을 키우기 위한 취지로 실행되고 있는 글로벌 독서경시대회이다.

명덕외고 학생들은 전공어별로 선정된 모든 책을 읽고 시험을 치른다. 이 대회는 방과후 신청과 동일한 사이트에서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신청 방법도 쉽고 인원 제한이 없어서 전교생 모두가 신청이 가능하다.

이번 글로벌 독서경시대회에서는 학생들이 전공어별로 중국어 - '맹자', 독일어 - '데미안', 프랑스어 - '황금 물고기', 일본어 - '파계', 러시아어 - '대위의 딸'까지 총 5권을 읽고 시험을 치렀다. 학생들은 이번 기회로 각 전공어별로 책을 읽으며 세계의 다양한 문화를 익히고, 글로벌 독서경시대회를 통해 자신의 독서 실력을 확인할 수도 있는 보람찬 시간이 되었다.

또, 글로벌 독서경시대회는 큰 대회인 만큼 대회 포스터를 학생들이 직접 만들고 그것들을 평가하는 공모전을 여는데, 매년 정말 많은 학생들이 참가해서 자신의 실력을 마구 뽐낸다. 올해는 특별히 좋은 포스터 작품들이 많이 나와 일정 기간 1층 복도에 전시를 하기도 하였다.

글로벌 독서경시대회를 통해 더욱더 세계적인 인재로 거듭나는 명덕인들의 미래가 밝다.

기자_황은지

명덕 탐구생활

명덕외고 기숙사 좋나요? 평일에는 외출을 못하는 건가요? 학교에서는 공부만 하나요? 열심히 인터넷을 검색하고, 학교 공식 홈페이지에 들어 가보아도 실제 명덕외고에서의 삶이 어떤지 아는 것은 쉽지 않다. 명덕외고에 대해 더 자세히, 속속들이 알고 싶은 이들을 위해 준비한 명덕탐구생활, 지금부터 명덕의 A to Z를 알아보자.

기자_이지원, 백소현

각박한 일상 속 즐거움, 명덕 이벤트

대한민국에서 고등학생으로 사는 것은 굉장히 힘든 일이다. 하지만 명덕외고에는 지쳐있는 학생들에게 소소한 즐거움을 주는 이벤트들이 준비되어 있다. 작년 10월경에는 야간 자율학습을 끝낸 학생들을 위한 명덕 야시장이 개최되었다. 기숙사 학교이기에 외출이 자유롭지 못한 학생들에게 안성맞춤으로 맛있는 간식들이 판매되었다. 유명 TV프로그램을 패러디한 〈복면끼왕〉 이라는 행사도 진행이 되었는데 학생들은 이 시간동안 학업에 대한 고민은 잊은 채 웃고 즐기며 스트레스를 날려 보낼 수 있었다. 이 밖에도 하루 일과를 다 끝낸 새벽, 영화 제작 동아리가 직접 제작한 영화를 상영했던 〈기숙사 미니 영화제〉, 친구들끼리 모여 사연을 들으며 공감하고 즐거워했던 〈명덕 라디오〉, 이과생 못지않은 열정을 뽐내며 겨루었던 〈도전! 과학 골든벨〉 등 다양한 행사들이 개최되었다.

친구와 함께하는 아름다운 밤, 기숙사

명덕외고의 많은 장점 중 가장 특별한 한 가지를 꼽으라면 그것은 단연 기숙사일 것이다. 명덕외고 학생들은 하교 이후 곧장 면학실로 이동하여 오후 10시까지 자습을 한 후 11시에 생활실로 이동해 취침 준비를 하고, 12시 소등 이후 취침을 하는 시간표에 따라 기숙사에서의 하루일과를 보내고 있다. 주말에는 귀사를 하지만 평일에는 대부분의 시간을 이곳에서 보내야 하기 때문에 기숙사 곳곳에는 학생들을 배려한 시설들이 있다. 인터넷 강의 수강, 자료 검색 등을 할 수 있는 지하 컴퓨터실, 조별 모임을 할 수 있는 다목적실 등 학업을 위한 공간부터 체력을 단련할 수 있는 헬스장, 맛있는 야식을 먹을 수 있는 라면 자판기와 같은 편의시설까지 학생들은 기숙사에서의 1주일을 큰 불편함 없이 보낼 수 있다. 같은 일상을 함께하는 친구들이기에 한 공간에서 생활하며 더 많은 추억을 쌓을 수 있다.

선생님, 저 여기에 있어요! 퍼미션 제도

학교생활을 하다보면 갑자기 아파서 병원을 가야 하거나, 급하게 필요한 물건을 사야하거나, 조별 과제를 하기 위해 본관을 이용해야하는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자습 시간(16:00 ~ 22;00) 중에 면학실에 있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는데 이런 상황에 이용하는 것이 바로 퍼미션 제도이다. 하교 후 오후 4시부터 10시까지 학생들은 원칙적으로 면학실에 있어야 하기 때문에 아무 예고 없이 자리를 비운다면 혹시 모를 응급상황 시 선생님께서는 학생의 위치를 알 수가 없으시다. 이에 학생들은 명덕외고 홈페이지 내 'MD퍼미션'이라는 사이트를 이용하여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할 것인지를 입력하여 담임 선생님께 제출하고, 선생님들께서는 학생들이 신청한 것을 보시고 신청 사유가 적합한지 확인하신 뒤에 이를 승인해주신다.

선배와 나의 연결고리! 직속제도

명덕외고에는 선배들과의 징검다리 역할을 하는 직속 제도가 있다. 같은 과 2학년 한 명과 1학년 한 명이 서로 짝이 되어 생일도 챙겨주고 시험기간에는 간식과 응원메세지도 건네주면서 돈독한 우정을 쌓는다. 1학년들의 경우에는 궁금한 것이나 혼자서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마다 언제든지 직속선배의 도움을 받을 수 있어서 학교에 더 빨리 적응할 수 있다. 또한, 교내에서 진행되는 다양한 행사 중에는 1, 2학년이 함께 참여하는 것이 많기 때문에 선배들과의 교류가 중요한데, 이때 직속 선배에게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친구 사이에서는 쉽게 말할 수 없는 고민도 털어놓을 수 있고, 힘든 학교생활에서 의지할 수 있는 선배가 있다는 것이 직속제도의 가장 큰 매력이 아닐까?

너를 위해 다양하게 준비했어, 특별실

명덕외고는 전원 기숙사 생활을 원칙으로 하고 있어 컴퓨터나, 복사기 등을 집에서처럼 자유롭게 이용하는 것에 제한이 있다. 하지만 학교에는 이러한 학생들의 상황을 배려하여 컴퓨터를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 따로 준비되어 있다. 학생들은 약 100대 정도의 컴퓨터들이 설치되어 있는 본관 1층 랩실과, 기숙사 지하 컴퓨터실, 그리고 기숙사 로비에 위치한 9대의 컴퓨터들을 이용할 수 있고, 도서실이나 기숙사 로비에는 복사기도 있기 때문에 큰 불편함 없이 수행평가나 수업용 과제들을 준비할 수 있다. 또한 조별모임이 많은 명덕외고의 특성을 고려하여 본관 3층에는 각 과별로 전공어 회화실이 있는데, 학생들은 1층 교무실 앞에 마련된 다목적실 신청대장에서 원하는 공간을 신청한 뒤에 그곳을 동아리 모임, 발표 준비, 조별 과제 준비 등 다양한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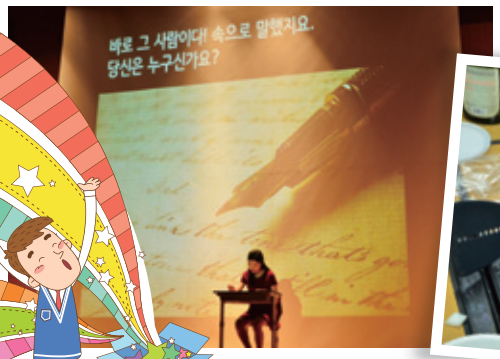
나의 꿈을, 나의 끼를 여기서, 동아리

명덕외고에는 학생들의 진로나 관심사를 반영한 다양한 동아리들이 있는데 크게 공연, 학술, 봉사 3가지로 나뉜다. 사물놀이 동아리 〈패〉, 밴드부 〈게로이〉, 댄스 동아리 〈D.O.H.C.〉, 광고 제작 동아리 〈애드히어〉 등 공연동아리들은 매년 동아리 발표회 시간에 무대에서 자신들의 끼를 마음껏 발산한다. 학술동아리에도 모의 유엔 동아리 〈MDMUN〉, 경영 동아리 〈레쎄페르〉, 심리 동아리 〈POP〉 등 많은 동아리들이 속해 있는데 매 동아리 시간마다 심도 있는 활동들을 통하여 수준 높은 결과물들을 만들어 낸다. 마지막으로 교육 봉사 동아리 〈디에넨〉, 학교 홍보 동아리 〈COMP〉등 봉사 동아리도 있다. 본동아리들 이외에도 150여개가 넘는 자율 동아리들을 학생들이 직접 만들어 진로가 비슷한 친구들끼리 논문도 작성하고, 포험 활동도 진행한다. 학생 주도적으로 활동들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중학생 때 보다 더 다양하고 심화된 동아리를 경험할 수 있다.

6개의 문화를 한곳에서! 세계문화축제

한 해의 마지막을 장식하는 세계문화축제는 6개 국가의 문화를 한번에 만나볼 수 있는 날로 다양한 언어와 문화를 배우는 명덕외고 학생들만의 특별한 축제이다. 1부에는 전공 언어를 배우며 접한 나라별 문화를 토대로 과별 특색을 살린 문화 부스와 음식 부스가 운영되고, 2부에는 1년동안 갈고 닦은 전공어 실력과 창의력을 뽐내는 전공어 연극 경연 대회가 열린다. 각 음식부스에서는 학생들이 앞치마를 두르고 서툰 솜씨지만 정성껏 음식을 준비했다. 찹스테이크, 블리니, 오꼬노미야키, 퐁듀 등 세계 각지의 음식들이 학생들의 손에서 만들어져 저렴한 가격에 판매되었다. 먹거리와 더불어, 바스티유 감옥탈출, 시베리아에서 살아남기 등의 국가별 재미있는 문화를 소재로 한 부스들이 큰 인기를 끌었다. 축제는 명덕외고 학생들 뿐 아니라 다른 학교에서 세계문화축제를 즐기기 위해 온 학생들, 선생님들, 그리고 졸업생들로 북적였다.

기자_신민승, 임은지



명덕인의 작은 운동회, MD스포츠리그

2017년 3월 29일, 드디어 MD스포츠리그의 막이 올랐다. MD스포츠리그는 기숙사 생활을 하면서 소홀해질 수 있는 신체활동의 중요성이 주목받으면서 기획된 행사이다. 학생회 체육부를 중심으로 1, 2학년에서 운영위원을 선발하여 운영 세부 방식과 각 종목의 경기 규칙을 결정하고, 심판을 선발하여 리그를 운영한다. 남학생 종목으로 축구와 농구가 있고, 여학생 종목으로 피구와 발야구가 있다. 탁구는 남녀 학생이 함께 출전하는 종목이다. 지·덕·체를 겸비한 명덕인이 되기 위해 출전 선수들은 진지하게 연습을 하고 경기에 임하는 모습을 보였다. 학생들은 이 리그를 통해 지루한 일상에서 벗어나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고 경기를 함께 준비하는 과정에서 선후배들과 친구들과 더욱 가까워지는 계기가 될 수 있다.

기자_김찬영

여행과 공부, 두 마리 토끼를 한번에! 2학년 심성수련과 사회과 경시대회

- A코스 해안-오죽헌, 경포대, 커피거리, 정동진, 강릉 중앙시장
- B코스 산지와 고원-오대산 월정사 전나무길, 대관령 양떼목장, 풍력발전단지
- C코스 정선-아리랑 시장, 레일바이크, 화암동굴, 삼탄아트마인

6월 7일부터 9일까지 명덕외국어고등학교의 2학년 학생들은 강원도로 수련회를 떠났다. 학창시절의 마지막 수련회인 만큼 설렘과 기대는 더욱 컸다. 이번 수련회는 색다른 방식으로 진행되었는데 A, B, C코스로 나눈 후 학생들이 가고 싶은 코스를 직접 선택해 첫째 날을 보내는 형식을 이루어졌다. A코스는 해안을 중심으로 경포대와 정동진, 강릉 중앙시장 등을 갔고 B코스는 산지와 고원을 중심으로 오대산 월정사 전나무 길, 대관령 양떼목장 등을 갔다. 마지막으로 C코스는 정선을 탐방했는데 아리랑 시장, 화암동굴 등을 탐방할 수 있었다. A코스는 전교생의 반 이상이 선호할 정도로 가장 인기가 많았다. A코스를 선택한 한서영 학생은 "바닷가 가서 바람 쐬고 오고 싶어서 선택했다. 일상에서 벗어나는 즐거운 시간이었다. 또 코스를 학생들이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어서 좋았다."라고 전했다. C코스를 선택한 박혜정 학생은 "예전에 레일바이크를 탔을 때 재밌었던 기억이 있었고 또 타고 싶어서 선택했다. 가장 좋았던 것은 화암동굴이었고 신기했다." 라고 말했다. 학생들은 각자 선택한 코스에서 한국지리 시간과 사회문화 시간에 배운 지식을 적용하고 직접 체험함으로써 더욱더 깊이 있는 지식을 습득 할 수 있었다. 둘째 날은 익스트림 스포츠들이 준비되어 있었다. 학생들에게 인기가 좋았던 마운틴 코스터부터 시작해서 페인트 볼 등 다양한 스릴을 경험해 볼 수 있었다. 임지원 학생은 "여러 가지 체험을 해볼 수 있어서 좋았고 특히 마운틴 코스터가 가장 기억에 남는다. 평소에도 운동을 좋아하는데 이렇게 색다른 활동들을 경험할 수 있어서 좋았다."라고 전했다. 오후에는 학생들이 가장 고대하던 워터파크에 갔다. 워터파크에 들어가지 못하는 학생들은 옆에 사우나를 이용했다. 김예은 학생은 "학생들끼리만 이렇게 워터파크에 오는게 쉽지 않은데 친구들이랑 색다른 경험을 해 볼 수 있어서 좋았다. 친구들과 풀장에서 유치한 장난도 치면서 어린아이로 돌아간 것 같았다."라고 말했다. 셋째 날에는 드라마 도깨비 촬영지로 향했다. 곤돌라를 20분간 타고 올라갔고 인기 있던 드라마였기 때문에 모든 학생들이 설렘을 안고 둘러보았다.

친구들과 추억을 쌓으며 즐겁게 논 학생들은 학교로 돌아와 각 팀별로 보고서를 쓰기 시작했다. 통계활용 이슈 브리핑 대회와 지리답사 보고서 대회가 열리는 만큼 학생들은 수상을 하기 위해 고군분투 했다. 그 중 통계활용 이슈 브리핑 대회에서 대상을 탄 하다망고팀은 "우연히 우리 사회에서 사라져 가는 덤 문화를 다루고 있는 기사를 읽고 어느새 더 달라고 말하기 전에 눈치를 먼저 보게 되는 현실을 인식하게 되었다. 마침 시장으로 수련회를 가게 되어 전통시장에서의 인식은 여전한가에 의문을 품게 되어 이 주제로 보고서를 쓰게 되었다. 우리는 우리의 궁금증을 풀고 즐거운 활동을 하며 준비를 했기에 많은 기대를 하지 않았지만 금상이라는 큰 상을 받고 많은 사람들의 호응을 얻어서 매우 뿌듯하다."라고 전했다. 또한 "사회현상에 관한 통계활용 이슈 브리핑대회이니만큼 사회문화 과목과 연계지어 자료 수집을 진행하였다.

기자_김영민, 윤준영

Stories of Foreign Teachers

The Great MD Drama class

명덕외고 원어민 방과후 수업 중 가장 인기 있는 The Great MD Drama Class! 이 수업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기 위하여 Timothy 선생님을 만나 보았다.

Q Can you give us a short introduction of your drama class?

A Read the description on the website.(laugh) Well, it's a collaborative dramatic arts class that focuses heavily on improvisational act. Yes.

Q Why did you decide to open this class?

A Having a drama class was one of the most fun experiences that I had in highschool and I wanted to extend that fun experience with the students in MyungDuk.

Q What do you expect this class to affect your students?

A Empathy, because it is the basis of social skills and collaborative skills that will help you succeed in life. Many studies say that learning empathy becomes much more heightened when you engage with stories, and when you try to feel the feeling of the character. This is also really helpful with other academic things like debating, and understanding people's points of view.

Q Is there a memorable moment you had during drama class?

A There was a moment when the entire student body of the class decided to collaborate on a prank to fool me. The kids did it successfully for a several minutes, using all the skills they learned in class. It was kind of ironic.

Q Where did you get the ideas of activities in drama class?

A It was a hodge podge of my memories, as well as researching. When I was a child, I went to a lot of drama camps, and in high school drama class was one of my favorite classes, so I still remember them now. Later on, I had to purchase some books to help aid although they didn't always help.

기자_신민승, 임지영

Do you know who she is?

현재 명덕외고에서 가장 재미있게 수업하시는 원어민 선생님은 누구일까? 바로 Margaret 선생님이시다. 그녀는 따뜻한 미소와 다양한 수업 방식으로 학생들이 영어를 즐겁게 배울 수 있도록 노력하신다. 선생님에 대한 궁금증을 풀기 위해 직접 찾아가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Q Can you introduce yourself briefly?

A My name is Margaret McAskile and I'm Canadian. I was born in this place called London in Canada, but mainly lived in Toronto. I've been in Korea for about 5 years and got married with Korean recently.

Q Then, Why did you become a teacher?

A Teacher wasn't my first career goal. I was working in business in marketing. And I was for fashion distribution company. But I just retired to take a break for a year and I wanted to travel and try teaching. I love teaching and have passion for it.

Q Why did you come to Korea for your teaching life?

A I have some Korean friends in Toronto and they recommended coming here to teach. They said students are very motivative and I can get some new experiences.

Q What is the most important thing in your class?

A Harmony. I want to give same opportunities to students. My classes are conducted in English and the range of opportunities are quite wide. I want students enjoy my class regardless of their English level.

Q What do you want to tell to Myungduk students?

A Even students have a lot of uncertainty and bad feelings about future, I want to say them just focus on their own goals and dreams. Remind yourself what you want to do and what you like. You can give yourself your own good foundations.

기자_안수현

Bonjour, le français!

항상 유쾌한 모습으로 프랑스어과 학생들의 힘든 학교 생활 속 인간 비타민 역할을 해주시는 프랑스어 원어민 선생님 Vincent Dubeau 선생님을 모셨다.

Q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A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Vincent Dubeau입니다. 저는 프랑스 나이로 51살이고, 25년 동안 프랑스어 선생님을 하고 있어요. 현재는 결혼을 했고, 두 아이의 아빠로 살고 있습니다.

Q 주로 어떤 내용으로 수업을 진행하시나요?

A 수업에서는 프랑스어로 회화를 가르치고 있는데, 가끔은 어려울 때도 있어요. 왜냐하면 학생들은 수업시간에 항상 프랑스어로 대화하지는 않거든요. 그 부분이 어려워요.

Q 한국에서 선생님을 하시게 된 이유가 있나요?

A 저는 우연히 선생님이 되었어요. 한 친구가 한국에서 선생님을 해보지 않겠냐고 제안했고, 저는 한국에 오고 싶어 했기 때문에 그 일을 수락했죠. 사실 원래 계획은 한국에 1, 2년 동안만 머무는 거였어요. 그러나 (웃으며 결혼반지를 가르킴)

Q 선생님으로써 어떤 목표를 가지고 계시나요?

A 제 목표는 10~20퍼센트의 학생들이 고등학교 졸업 후에도 대학교에서 프랑스어를 공부하는 거에요.

Q 학생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고 싶으세요?

A 저는 학생들이 다양한 관점을 가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또, 다양한 문화를 배우면서 세상은 한국이나 프랑스로 제한되는 것이 아니라 아주 넓다는 것을 이해하게 하고 싶어요.

Q Présentez-vous, s'il vous plaît.

A Bonjour! Je m'appelle Vincent Dubeau. J'ai cinquante et un ans à l'âge français. Je suis professeur de français depuis 25 annáe. Je suis marié et père de deux enfants.

Q Qu'est-ce que vous faites dans votre classe?

A Pendant la classe, j'essaye de vous faire parler francais, mais je ne réussis pas toujours. Parce que parfois vous ne voulez pas parler le français. Dans ma classe, je fais la conversation française.

Q Pourquoi êtes-vous devenu professeur en Corée?

A Je suis devenu le professeur par accident. J'ai un ami qui m'a proposé ce travail. Et parce que je voulais venir en corée, j'ai accepté. Mais à l'origine, je voulais rester en corée pour juste une année où deux années. Mais..(En montrant son alliance)

Q Quel est votre objectif pour vos étudiant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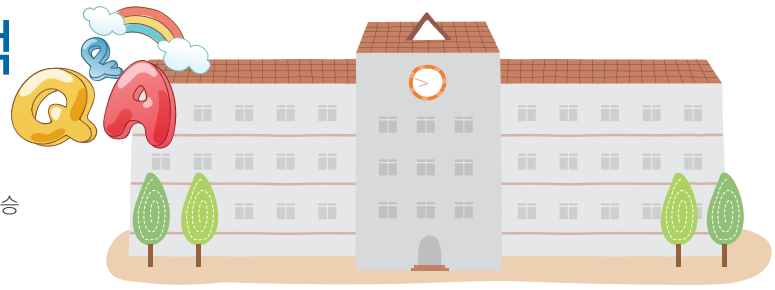
A Mon objectif, c'est que dix à vingt pour-cent des étudiants continuent à étudier le français à l'universite.

Q Quelle influence voulez-vous avoir sur les étudiants?

A J'espère que les etudiants peuvent avoir un autre point de vue. peuvent découvrir une culture différente et comprendre que le monde est grand et ne se limite ni la Corée ni à la France.

기자_임지영, 임은지

명덕 Q&A



기자_신민승

학교생활

Q 급식 맛있나요?

A 최근에 많이 맛있어졌습니다! 하루 세 끼를 학교에서 해결하는 명덕인들에게 맛있는 급식은 필수잖아요!! 특히 아침은 씨리얼이나 빵도 준비해 주기 때문에 늦잠을 자더라도 아침을 거르지 않을 수 있어요.

Q 외고면 내신 따기 어렵지 않나요?

A 물론 쉽지는 않지만 대학에서도 그 노력을 알아주니까요. 학습 분위기도 전체적으로 굉장히 좋아서 서로서로가 자극이 되고, 무엇보다 제가 생각하는 외고의 가장 큰 장점은 다양한 활동들인 것 같아요. 동아리 발표회, 체육대회, 세계문화축제 같은 학교 행사마다 자치 위원회가 만들어져서 직접 행사를 기획, 운영하고 이 외에도 MDSEP 강연, 자율동아리 활동, 전공심화과정 등 생활기록부에 채울 내용이 정말 풍성해요. 무엇보다 수시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특별한 활동들이 꼭 필요하겠죠?

입학준비

Q 전공어를 할 줄 알아야 그 과에 지원할 수 있나요?

A 아니요! 처음 입학했을 때는 모든 과가 기초부터 배우기 때문에 그런 걱정은 안 하셔도 돼요. 물론, 중국어과와 일본어과의 경우, 다른 과에 비해 해외에 살다 온 친구들이 많은 편이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수업을 그 친구들에게 맞추어 진행하지는 않아요.

Q 독서나 봉사 등 생활기록부에서 어떤 면을 중점을 두고 보시는지 궁금해요.

A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선생님들께서 종합적으로 보고 심사하시기 때문에 명확히 하나를 말씀드릴 수가 없어요.ㅠㅠ 합격한 친구들에게 물어봤을 때, 독서를 40권 한 친구도 있는 반면 3권 한 친구도 있고, 정기적인 봉사로 30시간 이상을 한 친구도 있는 반면 의무 시간만 채운 친구도 있을 정도로 개인차가 크더라구요. 하지만 봉사나 독서는 자기소개서 작성 시 포함할 수 있기 때문에 많이 해서 나쁠 건 없겠죠?

기숙사

Q 몇 명이서 한 방을 쓰는 건가요?

A 기숙사는 4인 1실로 사용을 하게 되는데요, 방마다 화장실이 두 개씩 있고, 이층 침대가 두 개씩 있습니다. 4인 1실이라고 하면 좁을 것 같지만, 사용해보면 생각보다 넓고, 아주 쾌적해요! 특히 화장실이 두개라서 아침에 급하게 준비할 때에 정말 편합니다!

Q 기숙사 방 배정은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나요?

A 방은 모두 랜덤으로 배정되고, 침대는 1층과 2층을 번갈아 가면서 사용하게 돼요. 그리고 한 학기마다 방을 바꾸기 때문에 여름방학과 겨울방학이 끝날 때마다 짐을 모두 집으로 가져가야 해요!

Q 기숙사생들은 어디에서 자습하나요?

A 1, 2학년은 기숙사 건물 3층에 있는 면학실을, 3학년은 1층에 있는 면학실을 사용해요. 면학실 말고도 기숙사 지하에 컴퓨터실, 다목적실 등이 이용가능하고 로비에도 컴퓨터들이 있습니다. 기숙사가 지어진 지 얼마 안돼서 시설이 모두 깨끗한 게 큰 장점이에요.

Q 기숙사는 의무인가요? 선택인가요?

A 올해까지는 1, 2학년 학생들은 의무입사이고, 3학년 때는 선택으로 바뀌어서 퇴사할 수 있었어요. 그러나 2018학년 입학생부터는 기숙사 의무입사 조항이 폐지되었기 때문에, 건강문제나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기숙사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입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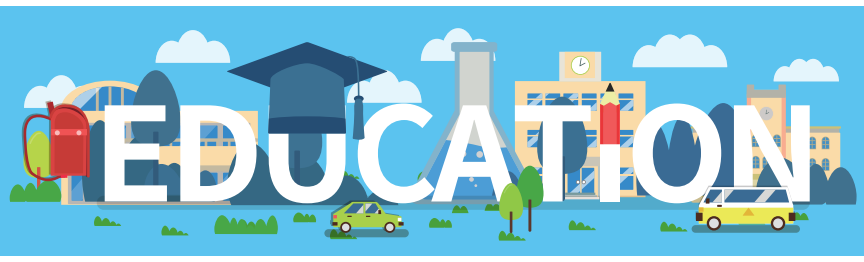
Q 기숙사 생활을 하면 친구들과의 관계는 어떤가요?

A 처음에는 친구 관계에서 갈등이 많을까봐 저도 걱정이 많았었는데요, 오히려 그 반대였어요! 계속 같이 지내다 보면 더 돈독해져서 거의 친구보다는 가족이 되고, 특히 시험기간 같이 심적으로 힘들 때는 동갑인 친구들이 가장 큰 의지가 되더라구요.

Q 주말에 기숙사에 있을 수는 없나요?

A 네, 주말에는 반드시 귀가해야 해요. 정기 외박 시간은 토요일 12시이지만 학원을 가고 싶은 친구들은 금요일 방과후부터 학교에 외출증을 내고 외박이 가능합니다.

우리들의 손으로 직접 만드는 방과 후, SOL&SAL



SOL / SAL 방과 후 개설현황

기자_이지원, 전세연

연번	구분	강좌명	요일/시간	지도교사	인원
1	SOL	면접 대비반	화11	전원발	19
2	SOL	한중일비교문학연구	금8	최영희	12
3	SOL	문학비문학기출문제집중탐구	화10	김지운	11
4	SOL	세계문학특수과제연구	금9	김지운	10
5	SOL	영화의 철학적 이해	화11	김지운	19
6	SOL	프랑스어 회화 작문 실력 향상반	화10	Vincent	12
7	SOL	프랑스어 회화 작문 실력 향상반	화11	Vincent	9
8	SOL	수학문제 해결의 다양한 접근	목10	이성호	20
9	SOL	열린연단 토론반	목8,9	박정은	9
10	SOL	Think Critically, Write Logically	화10	나지영, 오세연	20
11	SOL	Play with Literature	화11	하아련	8
12	SOL	My Bigger Question	금8	하아련	7
13	SOL	Nous parlons en francais	화10	신혜리	9
1	SAL	시스템 다이내믹스	금8	정창권	25
2	SAL	대중매체 분석을 통한 교육학 연구	화10	하아련	7
3	SAL	Real Logica	금8	권오경	4

하나부터 열까지 학생들의 손으로 직접 만드는 SOL, SAL 방과 후 학교는 명덕외고만의 특별한 수업 중 하나이다. 비슷한 듯 다른 두 방과 후 SOL, SAL, 지금부터 그 공통점과 차이점을 알아보자.

SOL 방과 후 학교(Student Oriented Lectures)란 기존에 존재하는 정규 방과 후 학교 이외에 학생들이 별도로 개설하여 운영되는 방과 후 학교이다. 듣고 싶은 방과 후가 있었지만 인원이 다 차버려서 듣지 못하게 된 학생들이나, 기존의 방과 후 활동을 더 심층적으로 진행하고 싶은 학생들이 주로 개설하는 방과 후 프로그램이다. SAL 방과 후 학교(Student Oriented Academic Lecture)란 학생들의 학술·자율 동아리 활동을 위해 개설되는 방과 후 학교이다. 관심 있는 분야가 비슷한 학생들끼리 강좌를 개설하여 학문에 대한 열정을 심화하고 대학 전공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주로 논문 작성이나 심층 토론 등의 활동을 한다. 이 방과 후 또한 소규모 인원으로 구성되기 때문에 학생 개개인 1:1 맞춤지도 또한 가능하다. 배우고 싶은 과목, 더 알고 싶은 분야가 비슷한 학생들끼리 모여 함께 토론하는 SOL, SAL 방과 후는 학생 스스로가 더 알고 싶은 분야를, 원하는 친구들과 함께 모여 만들어 간다는 것에 큰 의미가 있다.